

최인훈의 <가면고>에 나타난 가면의 의미

인도 문화 브라흐마교의 사유에 근거하여

칸 앞잘 아흐메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박사 수료,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

afzal@hanmail.net

I. 머리말

II. 주인공의 가면과 인도 브라흐마교의 관계

III. 현대 한국적인 브라흐마의 제시

IV. 반브라흐마니즘적인 대립 해소의 의미

V. 맺음말

이 논문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의 “문화어문학의 연구 방법과 실천 II” 2015년 전국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최인훈은 관념적이며 다양한 형식의 소설을 실험적으로 창작해온 작가로 평가받는다. 본고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가면고〉에 나타난 인도 문화적 요소(가면의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가면고〉에서는 대표작인 〈광장〉과 마찬가지로 인도인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인도인의 이야기가 작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훈의 작품은 주체성·근대성·예술론·관념성·실험성·환상성·정체성·전후소설·(탈)식민주의·사랑·여성·패러디·정신분석·기독교 등 매우 다양한 관점들¹⁾에 의해 연구되어왔으며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면고〉의 경우 ‘얼굴의 도상학’, ‘환상성’, ‘서사 구조’, ‘주체성’, ‘유토피아 관점’, ‘프랑스 실존주의 영향’ 등 다양한 관점과 층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인도인과 인도적 사유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드물다.³⁾ 〈가면고〉에서 현대 주인공의 전신(前身)을 고대 인도인으로 설정하면서 그를 고대 인도의 시공간 속에서 형상화한 작가의 의도를 조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다시 말해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도 문화적 요소(브라흐마교의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가면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는 흔히 인간에 의해 이룩된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 그리고

1) 정재림, 『문학을 심문하는 작가』(글누림출판사, 2013), 15-16쪽.

2) 박주현, 「최인훈의 『가면고』에 나타난 프랑스 실존주의의 영향」, 『비교문학』 49권(한국비교문학회, 2009); 양윤의,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얼굴”의 도상학: 『가면고』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23(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장사흠, 「최인훈 소설에 있어서 환상의 의미: 〈가면고〉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3권(한국현대소설학회, 2000); 김미영, 「〈가면고〉의 서사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화』 Vol. 25(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황정현, 「『가면고』의 서사 구조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9집 9권 4호(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장혜련, 「〈가면고〉의 “정체성 찾기” 연구」, 『현대소설연구』 38권(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김인호, 「텍스트의 유토피아와 삶의 변증법: 최인훈 소설 『가면고』론」, 『동국어문학』 10-11권(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1999).

3) 불교나 인도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한 연구가 한 편 있다. 그러나 〈가면고〉에서 나오는 다문고 왕자 이야기의 기원으로 보면 그때까지는 불교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김상수, 2014)는 작품 속의 불교적 요소를 밝히기 위한 종교적 분석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당시의 인도 문화의 형상과 소설에서 인도 인물의 등장을 통해 주인공 ‘민’의 문제가 해결되는 의미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김상수, 『최인훈 소설의 불교적 성격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물질적·정신적 결과물의 총칭이라고 정의된다.⁴⁾ 따라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생산물의 총체를 문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⁵⁾ 〈가면고〉에서는 인도인을 통해 인도의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는 인도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 형성된 유대 때문이다.

한국의 정신문화에서 과거에 ‘천축(天竺)’, ‘서천(西天)’ 등의 용어로 지칭되었던 인도는 평화와 안녕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인식은 인도가 불교의 발원지라는 점에서 유래할 것이다. 불교는 고대부터 한반도로 전파되어 한국인의 정신세계 일부를 형성해왔다. 또한 지금도 불교는 인도와 한국 간에 정신적인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⁶⁾ 『삼국유사』에 따르면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의 왕비 허황후는 인도인 아요디아 공주이다.⁷⁾ 다시 말하면 당시 가야의 소재지였던 김해에서 살아온 김씨와 허씨가 인도의 혈통을 가진 한국인인 셈이다.⁸⁾ 또한 한국과 인도는 반도 국가로서 오래전부터 중국과 경계를 이루며 갈등과 평화를 반복해왔다. 이 외에, 근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과 인도는 각각 외부 세력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고 ‘인도에서 발생했던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의 애국독립 운동들이 당시의 한반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뜨거운 관심’거리이기도 하였다.⁹⁾

〈가면고〉에 등장한 인도의 문화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대와 현대의 인도 문화보다는 고대의 인도 문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인도는 불교를 통해 한국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인도 문화 가운데 불교적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적어도 기원전 1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부터 살펴봐야 한다. 〈가면고〉에서 설정된 3000여년 전이라는 시간은 작품이 발표된 해인 1960년부터 약 3000여 년 전, 바로 기원전 1000년경이다. 따라서 실제 역사와 작품 내적 시간의 일치야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1999), 2295쪽 참조.

5) 백두현·배준영, 「한글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 서설」,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인력양성사업단 위임,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144-145쪽.

6) 한국과 인도의 정신적인 유대를 이루는 현상은 이 밖에도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혈연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리적인 것이다.

7) 일연, 『삼국유사』(서문문화사, 1994), 142-145쪽.

8) 김병도, 『허황후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위즈덤하우스, 2008).

9) 이옥순, 『식민지 조선의 희망과 절망, 인도』(도서출판 푸른역사, 2006).

시피 불교는 인도에서 기원전 500년쯤에야 생긴 종교이다. 즉, 〈가면고〉에서 최인훈은 인도인인 다문고 왕자의 등장 시기를 ‘불교가 탄생하기 500여 년 전’으로 설정한다는 뜻이다. “인도에서 인더스 문명인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농경문화인 인더스 문명은 대략 기원전 300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당시의 글자를 정확히 해독할 수 없어 현대인들은 기원전 2000년 혹은 1500년경부터 인도로 이주를 시작한 아리아인들의 ‘베다 문화’부터 이해해야만 한다.”¹⁰⁾ 이것은 인도 선주민 중심의 ‘인더스 문명’과 아리아인 중심의 ‘베다 문명’의 융합이 오늘날 인도 문화의 독특한 특성인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으로 〈가면고〉에서 현대와 고대 주인공에 의해 자주 언급되는 ‘브라마(Brahma)’는 최인훈이 인도 문화적 요소를 차용하는 의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도의 가장 오래된 문헌인 『베다』에는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등장한다.”¹¹⁾ 주로 “자연현상을 신격화한 베다교는 다신교에서 교체신교 및 일신교를 거쳐 범신론, 철학적인 일원론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태의 신앙이 모두 들어 있는, 말 그대로 종교의 보고이다.”¹²⁾ 그 가운데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신념과 카르마(Karma, 업(業)라는 독특한 철학적 이론을 가진 ‘브라흐마 종교’의 카스트 제도”¹³⁾의 영향하에서 당시의 정신문화는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주어진 운명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숙명론으로 변화했다. 즉, 인간이 선천적으로 결정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 속 모든 영역(정신적·물질적)의 활동에서 신분의 상승을 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브라흐마니즘적인 고대 인도의 문화는 베다 시대의 후기(탈베다 시기)인 기원전 600년쯤부터 점점 변화했다. 당시 “왕국들 사이에는 통일을 위한 내전과 페르시아의 외세 침입하에서 브라흐마니즘적 사상에 반대하는 반브라흐마니즘이 흥기한 상황”¹⁴⁾이었는데, 이 시기에 나타난 “불교

10) Majumdar, R. C., *Ancient India*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Private Limited Delhi, 1977), pp. 28-29.

11) 『베다』에 대해 좀 더 자세하기 알기 위해서는 *Ibid*, pp. 33-42 참조.

12) 김형준, 『이야기 인도사』(청아출판사, 2006), 81쪽.

13) 카스트 제도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Majumdar, R. C., *op. cit.*, p. 87 참조.

14) Chakravarti, K. C., *Ancient Indian Culture and Civilization* (Vora & Co., Publishers, Limited, Bombay, 1952), p. 101.

(Buddhism)와 자이나교(Jainism)가 바로 반브라흐마니즘의 대표적인 종교 형태이다.”¹⁵⁾

기원 천여 년 전, 브라미를 추구한다는 설정을 통해서 최인훈은 고대 인도의 브라흐마니즘적인 문화와 반브라흐마니즘적인 문화의 충돌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자유 지향 의지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점을 한국적 상황에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광장〉의 원형¹⁶⁾으로 불리는 〈가면고〉에 나타난 인도 문화적 요소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1960년대 한국에서 이 작품이 지니는 문학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인도인 문학 연구자인 필자는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인도 문화 찾기’와 같은 이 글의 연구 관점은 독자들에게 세계관이 넓고 글쓰기가 난해한 최인훈 작가의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II. 주인공의 가면과 인도 브라흐마교의 관계

최인훈은 〈가면고〉에서 현대의 주인공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민’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민으로 하여금 최면술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15) 자이나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신을 자아(Jiva)보다 낮은 위치에 두었으며 희생 제와 같은 브라흐마교의 행위는 해탈에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오직 ‘올바른 지식, 행위, 믿음’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고대 언어에서 Jiva(지바)는 자아의 뜻이며, 궁극적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또한 ‘지바’의 개념은 한국의 신교(神敎)에서 말하는 신(神) 문화와 비슷한 형태에 비유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고타마 붓다는 모든 근본적인 괴로움과 불행을 초래한 욕망 및 집착을 해소하려면 베다를 창조한 브라흐마교의 미신보다 이성과 자기 경험을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타마 붓다는 ‘팔정도’라는 여덟 가지의 올바른 삶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여덟 가지의 올바른 방법이란 우선, 올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한다(正見). 그레야만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正思).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올바른 말(正言)과 행위(正行, 正業)를 함으로써 올바른 생활(正命)을 영위해야 한다. 끊임없이 올바른 노력(正精進)과 올바른 마음가짐(正念), 올바른 정신집중(正定)이 필수적이다. 이 여덟 가지 방법을 올바로 실천할 수만 있다면 인간은 누구나 깨달음을 얻어 완전한 자유 혹은 해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고타마 붓다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16) 이상갑은 기존에 흔히 〈광장〉-〈구운몽〉-〈회색인〉-〈서유기〉의 순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달리 〈가면고〉-〈광장〉의 방향으로 최인훈 문학의 근원을 분석한 바가 있었다. 그는 〈가면고〉의 창작원리가 〈광장〉의 개작방향을 제시해주며 최인훈 문학의 원형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상갑, 『「가면고」를 통해서 본 「광장」의 주제의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집(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0), 79쪽.

3000여 년 전 인도 북부에서 융성한 왕국인 '가바나'의 왕자 '다문고(多聞耆)'라는 민의 전신을 등장시킨다.¹⁷⁾ 그리고 현재의 민과 과거의 인도 가바나국의 다문고 왕자로 하여금 수많은 내적인 갈등을 겪게 하고, 외적인 욕망을 갖게 한다. 두 인물은 모두 성인/바라문¹⁸⁾의 얼굴을 욕망했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문고 왕자'의 업이 풀리고 가면이 벗겨지는 일은 한국 전후 시대를 살아가는 '민'의 실존적 치유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현대인물인 민, 그리고 고대 인도인인 다문고 왕자를 같은 인물로 간주하여 각각의 사건 전개에 따른 내용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엄밀히 말하면 연대상으로 볼 때 다문고 왕자는 인도의 '베다 시기' 인물이다. 그러나 〈가면고〉에서는 왕자의 반항(또는 민의 갈등)행위가 '탈베다 시기'의 '혁신적인 사상'(반브라흐마니즘적인 사상)의 색채를 보여 준다. 이것은 한국 전후 시기의 퇴역군인이자 예술가인 민의 내적 갈등 이야기라 할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현대 주인공 민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브라흐마적인 욕망과 반브라흐마적인 사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본 후 다문고 왕자의 혁신적 사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1. 크샤트리아의 브라흐마적 욕망

'브라흐마'라는 말은 인도학계에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철학적으로 '우주' 또는 '신성함'이다. 또 하나는 베다 시기의 종교문화에 기반을 둔 인도 카스트 제도의 첫 번째 계급인 '성직자'이다. 이 두 가지 의미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다. 베다에 따르면 오직 신성한 자만 성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브라흐마는 성직자인 동시에 신성한 자이다. 〈가면고〉에서 현 시기에 사는 인물인 민은 성자의 가면을

17) 최인훈, 「가면고」, 『최인훈 전집 6: 크리스마스 캐럴/가면고』(문학과지성사, 2009), 222쪽.

18)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도 문화 관련 용어 중 다수는 직접적으로 인도에서 수용해온 것이 아니었다. 한글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중국의 한자를 통해서 의역 또는 음역되었거나 그 이후에 서양의 음역방식을 통해 들어온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도 문화의 용어가 잘못된 발음으로 표기되어왔다. '브라흐마' 역시 바라문/브라마로 잘못 표기되었고, 최인훈 역시 〈가면고〉에서 한국인에게 익숙한 발음인 '바라문'으로 적었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실제의 정확한 발음을 살려 원래 발음인 브라흐마(Brahma)로 통칭한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최면술을 통해서 나타난 민의 전생인 '인도 베다 시대의 다문고 왕자'도 브라흐마(성자)의 얼굴을 향한 욕망으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 이처럼 성자의 가면과 브라흐마 얼굴에 대한 욕망은 작품 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시된다. 여기에서는 우선, 브라흐마(성자)를 향한 민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가면고〉는 인간의 겉모습과 실재가 다르다는 민의 설명으로 시작된다. 민은 『인형의 집』의 여주인공 노라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뒤 아내를 상심하게 했고 아내가 죽은 뒤 아이에게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남편에 대해 나쁘다고 지적한다.¹⁹⁾ 민은 이어서 퇴역 후 순결한 눈을 가진 여인을 만나 금방 사랑에 빠졌으나 뜻밖에 그녀는 민이 전쟁터에서 만난 M소위와 관계를 가졌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민은 순수한 사랑을 가장한 그녀의 겉모습에 속았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민은 타인이 보여주는 허위의 모습에 대해 혐오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전쟁 중 '진짜 그 자신'은 소리 없이 숨어 있었다. 환경에 어울리기 위한 짐승의 슬기였다고 할까. [...]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전쟁은 그에게 보태지도 빼지도 않았다는 증거가 거기 있었다.

왜?

그는 겉보기에 속았던 것이다. [...]

그의 팔다리는 여전히 붙은 자리에 붙은 채 전쟁을 끝냈던 게 아닌가. 그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채 전쟁을 치른 것이다.²⁰⁾

민이 독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안과 밖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진정한 자아를 보여주지 못했고 시대 상황에 순응해야만 했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한 결과 전쟁을 통해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게 되었으며 단지 겉모습에 속아서 의미가 없는 전쟁에 참여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민은

19) 최인훈, 앞의 책, 190쪽.

20) 위의 책, 201-102쪽. (다음부터 작품의 인용문을 필자가 편의상 인용문 바로 옆에 쪽수를 밝히는 것으로 한다.)

전쟁에도 사랑에도 속았다며 두 번의 실망을 표했다.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한 브라흐마교 문화, 즉 당시 고대 인도의 문화에서 전쟁터에 가는 '전사'는 두 번째 계급인 '크샤트리아(전사) 계급'에 속한다. 카스트 제도가 성립되면서 크샤트리아는 전투하기 위해 태어나고 전투하기 위해 살아간다. 인도 카스트 제도의 입장에서 보면 소설의 주인공 민은 크샤트리아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민 크샤트리아'는 싸우는 영혼이라는 삶의 의미를 관습적으로 영위하다 문득 깨닫는다. 전쟁의 필요성과 결과물이 무엇인지 사고하기 시작하며 크샤트리아로서 존재한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분을 통해 선천적으로 부여된 크샤트리아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시작한다. 민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진정한 자아를 숨긴 채 전쟁을 치렀음을 인정하고, 또 그러한 행위를 후회한다. 이러한 모습은 그에게 주어진 직급과 계급을 벗어나 자아를 찾아내는 단초가 된다. 그렇다면 그 숨겨온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 다음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거울 속에는 쫓기는 사람의 초조함을 숨기느라고 짐짓 평정을 꾸민 가짜 성자의 탈이 있었다. 신의 창조에 들러리 선 사람만이 가질 만한 자신을 꾸민 눈. 바로 그것을 어기고 있는 입의 선. [...]

저 탈을 피가 흐르도록 잡아 벗겼으면. 그 뒤에는 깨끗하고 탄력 있는 살갗으로 싸인 얼굴이 분명 감춰진 것을 알고 있다. [...]

용서 사정없이 그 거짓의 얼굴 가죽을 벗겨내는 작업에 정실이 쉬었다면 그것은 또 어찌 생각하면 그 탈이 벗겨진 다음의 맨얼굴을 은근히 두려워한 까닭이 아니었을까? (205쪽)

진정한 자아를 찾는 데 우선, 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조함을 가리려는 가짜 성자'의 탈을 쓴 얼굴이라고 말한다. 특히 자기의 입 모양과 달리 눈은 신의 창조에 들러리 선 이미지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민은 스스로 자신이 그 성자인 듯 성자가 아닌 탈을 벗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가면 뒤에 숨은 그의 맨얼굴(bare face), '가짜 성자'의 탈을 쓰지 않는 채 진정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민은 두려워한다. 당시는 진정한 맨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은 대중 앞에서 진정한 자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짐작된다.

민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전쟁의

겉모습에 속았다는 것과 전쟁의 무용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슬픈 거처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실천하고자 한다. ‘민 크샤트리야’는 브라흐마(신성한)의 가면을 쓰고 브라흐마(신성한 사나이)로 위장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욕망은 베다 시기의 카스트 제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여기서 민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국은 실패한 가짜 브라흐마 가면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이 전후 시기의 크샤트리야(전사) 계급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때문에 브라흐마의 가면을 벗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깨끗한 맨얼굴을 보기 전에 맨얼굴 위에 깔린 크샤트리야의 얼굴이 먼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민은 맨얼굴을 가리는 크샤트리야의 모습에 대해 실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 위에 브라흐마(성자)의 얼굴이라는 가면을 한 겹 더 만들게 된 것이다. 여기서 민 크샤트리야의 브라흐마적인 욕망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그 욕망은 크샤트리야로서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맨얼굴 위의 두 가지 얼굴의 의미

민은 진정한 브라흐마를 향한 욕망으로 인해 ‘가짜의 성자 가면’을 쓰게 된다. 그렇다면 그의 맨얼굴 바로 위에 덮여 있는 크샤트리야의 얼굴 또한 과연 일종의 가면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민은 크샤트리야 사회에 순응해왔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크샤트리야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리기 위해 썼던 브라흐마의 가짜 얼굴(가면)까지도 벗어 던지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민이 사용하는 두 가지 얼굴이 각각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지, 어떻게 해야 맨얼굴 위에 덮여 있는 두 가지 얼굴을 제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무용이라는 예술이, 사람의 몸이라는 원시의 수단을 가지고, 공간의 조형에다 시간까지를 포함시킨 점에 예술 활동의 이상을 느껴오던 중, 그러한 무용의 상징성을 본으로 삼아 예술론을 펴보았다. (206쪽)

전차 정류장에서 망설이면서 깊은 밤 여자의 몸을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 참담한 심정이었다. 쌍두의 뱀처럼 상대방을 물어뜯으면서 자기 몸에 닥치는 자릿한 마조히즘을 즐기는, 저 밤의 향연을 위하여. 인간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

그녀는 무엇이 불만일까. 한 사람에게서만으로 사랑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여자는 아니다. 미라도 역시, 그녀 자신의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강한 것 같지만 제일 약한 여자들의 한사람일까. (211쪽)

자기 예술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향하여 허덕이는 그녀의 모습은, 민 자신의 일들을 돌이켜보게 하는 두려운 거울이었다. 두 사람의 예술가가 한 지붕 밑에 사는 것은 얼마나 꿈 같은 삶일까 싶었던 생각은, 그녀와의 서너 달 동안의 생활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212쪽)

민은 전쟁터에 나갔던 신분 외에 또한 무용론의 예술가라는 역할을 가진다. 예술가 직업은 고대 인도 브라흐마교에서 첫 번째 계급인 브라흐마 계급에 해당된다. 즉, 인도에서는 예술가가 매우 신성한 직업이며 브라흐마교에서는 신성한 자만 행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진다. 원시적 수단인 몸으로 하는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진 현대인 민은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여 자기와 같은 급, 즉 비슷한 직업이나 취향을 가진 배우자를 원한다. 그러나 삶의 유형이 같다고 해도, 육체를 상상하며 육체적으로 하나로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둘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용문에 나온 '쌍두의 뱀'은 말 그대로 몸은 1개, 머리는 2개로 되어 있는 형태로 육체는 하나이지만 정신은 분열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은 이러한 형태로 교제를 하고 쾌감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깨닫는다.

민의 여인 미라가 성공을 욕망하는 모습은 과거의 민 자신과 같다. 그러나 미라는 민과 달리 사랑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 이에 민은 미라가 그를 '자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 괴로워한다. 민과 미라는 신체적인 욕망을 서로 만족시키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하나가 아니다. 이처럼 '브라흐마(신성)의 가면을 쓴 사랑의 전쟁터'에서 발생한 이야기는 민과 미라가 바로 예술가라는 브라흐마의 가면을 쓴 '사랑의 크샤트리야'임을 증명해준다. 뿐만 아니라 민은 맨얼굴의 상태로 미라와 만나고 싶어 했지만, 미라는 민을 경계하는 크샤트리야의 얼굴을 버리지 못한다. 이렇듯 크샤트리야는 일종의 가면이다. 즉, 크샤트리야 얼굴은 하나의 방패임을 뜻한다. 두 사람은 크샤트리야의 가면을 쓰면서 각각 브라흐마의 욕망 때문에 브라흐마 가면을 덮어쓰는 것이다.

민은 사회에 순응한 결과물인 크샤트리야의 얼굴을 제거하여 진정한

브라흐마로 변신하기 위해 최면술 심리치료를 받는다. 민은 최면술을 통해서 꿈에서도 업과 무명으로 만들어진 크샤트리아(전사/왕족 카스트) 얼굴을 가진 다문고 왕자로서의 브라흐마(신성)적인 욕망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진정한 브라흐마의 얼굴을 만들 수 있는 상극(相剋)의 요소도 내포된다.

사람의 얼굴을 브라흐마(Brahma)와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버나 성 제일의 미녀를 품에 안아도 나의 마음은 막막할 뿐이었다. (224쪽)

“모든 사람의 얼굴은, 이 참다운 얼굴을 가리고 있는 탈이오, 모든 사람의 얼굴은, 이 브라흐마와 꼭 같이 거룩한 얼굴을 하고 있으나, 업(業)과 무명(無名)에 가려 그 탈을 벗지 못하는 거요. 왕자, 이 일은 왕국보다 중하오, 자기의 얼굴을 브라흐마의 얼굴로 만들 때까지 쉬지 마시오.” (225쪽)

민이 자기와 같은 ‘예술 종사자’인 미라를 선택한 것과 달리, 고대인 다문고 왕자는 계급이 자신과 천지 차이인 미녀 아라녀 궁녀(노예)를 선택한다. 그러나 다문고 왕자는 여전히 불행하다. 그 이유는 다문고 왕자가 진정한 브라흐마(신성) 얼굴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왕자의 스승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다 브라흐마의 얼굴을 갖고 있으나 업과 무명으로 인해 크샤트리아의 가면을 벗지 못한다. 스승은 명시적으로 ‘업’과 ‘무명’을 제거함으로써 크샤트리아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대신에 최종 목표인 ‘브라흐마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고’만 강조한다. 브라흐마 얼굴을 추구하는 왕자에게 스승은 ‘업’과 ‘무명’을 지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크샤트리아 계급보다 더 위의 계급인 브라흐마 계급의 얼굴을 만들라는 방식으로 왕자에게 한 가지 욕망을 더한다. 또한 스승은 왕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잘하려면 우선 신성한 얼굴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왕자의 능력이 나라를 관리하기에 부족한 수준임을 암시하며 그 부족한 수준의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크샤트리아(전사)의 얼굴에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가진 진정한 브라흐마 얼굴이 가면 밑에 숨어 있다는 스승의 말을 통해서 크샤트리아로서의 브라흐마적인 욕망(카스트 제도를 초월하려는 혁신적인 의식)이 곧 현대인 민과 같이 ‘맨얼굴의 상태’를 추구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만하고 부드러운 심정으로 느긋이 거니는 봄날의 시골 길같이 평화스러운 것이 자아 완성의 길이어야만 할 것 같은데. 풍족한 느낌 대신에 굶주린 도깨비마냥 헉헉한 가슴을 쥐어뜯으며, 핏발 선 눈으로 새벽을 맞는 것이 브라마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었다. (228쪽)

“왕자께서는 전혀 상극이 되는 두 가지를 안에서 맺으십시오써 탈을 벗으시고자 하였으나 저의 방법은 그 두 가지를 밖에서 묶는 것이옵니다.” […]

“지금 왕자께서는 가장 높이신 것은 가졌으되 가장 낮은 것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260쪽)

“내 탈을 벗지 못해도 좋다. 영원히 깨닫지 못한 채 저주스런 탈을 쓰고 살아도 좋다. 만일 이 끔찍한 일을 하지만 았았다면, 이 죄만 없어진다면…….” (310쪽)

“왕자 다문고, 너의 한마디가 너의 업(業)을 치웠다. 탈은 벗겨졌다.” (311쪽)

왕자는 마음의 평정을 이루고 자아 완성을 추구하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다고 말한다. 민과 같이 다문고 왕자도 마음의 평정을 얻으려고 하나 더욱 지쳐갈 뿐이다. 그래서 마술사 부다가는 왕자에게 가면을 벗기보다는 합치도록 제안한다.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합침으로써 가면을 벗기려는 것이다. 내적인 변화에 실패한 왕자를 마술사는 외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즉, 외적인 방식(브라흐마 얼굴 제조)으로 내적인 변화(크샤트리아 얼굴 제거)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이라는 상극의 두 요소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진다. 왕자는 사회적으로 권력과 무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렇다면 현대 크샤트리아 인물인 민과 미라가 실패한 것과 달리 고대인물인 다문고는 어떻게 계급이 같은 크샤트리아 왕녀를 통해서 마지막에 브라흐마 얼굴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해진다.

그것은 왕녀가 꼬끼리를 다스릴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를 위해 자신을 약화시켜서 ‘믿음이 있는 사랑’을 바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는 사랑은 왕자로 하여금 권력에 의한 강탈과 잔혹한 지배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이렇게 왕녀의 믿음과 왕자의 폭력이 융합되면서 낮은 것(믿음)이 높은 것(폭력/불신)을 해체하여 진정한 평정을 가져온다. 왕녀의 강한 믿음 덕분에 과거에 업을 두텁게 쌓아온 크샤트리아 왕자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죄)을 인정하고 본모습인 브라흐마(신성)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강한 믿음을 보여준 사랑은 불신과 폭력을 와해시켜 쌍두사의 머리를 하나로 만들어낸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랑’이 저주받은 가면을 떨어트리는 장면은

현대인 예술가인 민의 공연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성의 왕자가 마술사의 저주로 얼굴에 탈이 씌워져 벗겨지지 않는다. 마술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왕자를 사랑하게 될 때까지는 그 탈이 벗어지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것이다. [...]

이 어머니가 다름 아닌 마술사다. [...] (277쪽)

모녀의 방해를 굳세게 물리치고 사랑을 고백하는 신데렐라.

외적 운명이 내적 필연으로 바뀐.

마침내 떨어지는 탈. (292쪽)

…… 저를 마녀의 딸로 만들어버린 건 너무하시잖아요? (293쪽)

민은 신데렐라를 공연의 소재로 삼는데, 그 내용에서 구원받는 대상은 신데렐라가 아니라 왕자이다. 신데렐라의 계모인 마녀는 왕자에게 탈을 씌웠는데 그것은 자기의 딸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나 탈을 벗길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믿음이 있는 사랑'에 있다는 것은 지배적인 권력자인 마녀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민의 공연을 보러 온 미라는 연극을 관람한 순간 바로 자신을 마녀의 딸로 인식한다. 즉, 미라는 공연 속의 마녀의 딸처럼 믿음이 없고 이기적인 사랑을 소유하는 여(女) 크샤트리아인 터라 민의 가면을 떨어트리지 못하고 민의 맨얼굴을 드러나게 하지 못한 것이다.

〈가면고〉는 주인공을 둘러싼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유롭게 못한 모습, 실망한 모습, 불행한 모습, 욕망의 모습, 해매는 모습 등을 보여준다. 또한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곧 크샤트리아의 가면을 쓰게 된 것과 크샤트리아로서 브라흐마가 되려는 욕망 때문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 욕망은 또한 마녀나 미라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랑'과 '불신'을 가려내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현대 한국적인 브라흐마의 제시

지금까지 '인도 브라흐마교의 문화 관점'을 통해 민과 다문고 왕자가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가면고〉에서 나타난 인도 문화, 특히 브라마호교의 요소들을 통해 작가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는가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인도의 브라흐마교 문화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브라흐마(우주) 신이 카스트라는 신분제도를 만들었다는 신화를 믿는다. 전설에 따르면 브라흐마 신은 자신의 머리에서 ‘브라흐마’라는 사제계급을, 가슴에서 ‘크샤트리아’라는 무사계급을, 배에서 ‘바이샤’라는 상인계급을, 다리에서 ‘수드라’라는 노예계급을 만들었다고 한다.”²¹⁾ 이 신화의 의미는 인간이 신에 의해 이미 선천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계급이 정해진 채 태어난다는 뜻이며, 이는 아무리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더라도 영원히 바꿀 수 없다는宿命론이기도 한다. 이러한 불평등적宿命론은 모두 업이라는 철학적 이론과 관련된다.

그러나 기원전 600년쯤에는 인도에서 민중 통일을 향한 전쟁들이 발생했다. “크샤트리아 계급과 바이샤 계급은 각기 정치적·경제적 ‘권’을 강화하며 대립했으며, 그 후 살아남은 계급이 브라흐마의 사제계급과 대립하게 되었다.”²²⁾ 이렇게 보면 사람의 계급을 나누는 카스트 제도는 각 계급의 삶에 사실상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지 못할 뿐더러 ‘각각의 계급에 더 많은 소유의 욕망을 자아내게 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²³⁾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최인훈은 계급들 간의 욕망 대립이라는 브라흐마교의 문제점들을 자신의 작품에서 한국적 방식으로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이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추구했는지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최인훈이 추구하는 ‘현대 버전의 브라흐마’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 기척에 바짝 정신을 차렸을 때 정임은 사뿐히 뛰어내려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앞으로 고꾸라지는 민을 가슴으로 받으며 그녀는 웃고 있었다. (294쪽)

나는 여태껏 이처럼 자유자재한 몸짓의 인간을 보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과 얼굴은 하나였다. 마음이 웃는 것은 얼굴이 웃는 것이며, 얼굴 밑에 숨겨진 아무것도 없었다.

21) Chakravarti, K. C., *op. cit.*, pp. 66-67.

22) 브라만교가 만든 카스트 제도의 불평등을 반대하여 인도에서 일어난 반브라흐마니즘적 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Ibid.*, ‘The Revolt Against Brahmanism’ 장의 pp. 97-118 참조.

23) 이 욕망의 혼란 속에서 각 계급들의 집착심과 욕심에서 오는 고통을 없애고자 해탈을 추구한 반브라흐마니즘의 자이나교와 불교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들은 브라흐마교가 만든宿命론에 의지하는 것보다 자아의 수행을 더 강조하였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의 욕망을 없앴으로써 편리한 지배적 수단을 확보하려던 브라흐만교가 두 번째와 세 번째 계급의 상승하려는 욕망을 막기에는 결국 실패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96쪽)

그들이 이 근처로 지나다가 정임의 호기심을 풀어주느라고 들렀던 것이다. 그가 시술받고 독백하는 동안에, 옆방에서는 오늘 이야기와 함께 먼저 녹음한 것까지도 정임이가 모조리 들은 일을 그는 알지 못하였다. 본인도 모르는 ‘더 깊은 그’ 자신의 소리를 그의 여인이 다소곳이 빼지 않고 들었다.

“한동안 신세 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312쪽)

현대인 민은 미래에 대한 정이 남아 있는 채 새로운 여자 주인공인 ‘정임’과 사귀게 된다. 그때까지 그는 정임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정임은 의심 없이 강한 믿음과 사랑으로 민의 크샤트리아 얼굴을 와해시켰고 민의 믿음을 얻기에 성공한다. 또한 정임은 민이 받은 최면술 요법의 내용도 관심 있게 경청한다. 즉, 정임은 진심으로 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낮은 것’(믿음이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최면술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 민의 말을 통해서 그가 정임과 같이 있을 때 맨얼굴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면고〉에서는 민에 대한 세 가지 에피소드가 다루어지는데 민의 개인 이야기, 다문고 왕자의 이야기, 민이 대본을 쓴 신데렐라 극의 왕자 이야기가 이에 해당한다. 뒤의 두 가지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인 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민의 변화는 크샤트리아가 가지는 불신과 폭력에서 믿음으로 향하여 결국 브라흐마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진행된다. 먼저 미래와 불행하게 연애를 한 민은 정임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정임을 공연 수단으로 사용하며 사랑의 가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임은 미래가 남긴 메시지를 읽은 후에도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끝까지 민과 같이 있어준다. 원래 표리부동(表裏不同)이었던 민은 드디어 불신을 버리게 되며 브라흐마의 욕망(안심과 평정)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은 민이 실제로 감독하는 공연에서 신데렐라가 끝까지 ‘믿음의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의 힘을 발휘하여 저주 받은 왕자의 가면이 떨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맥으로 보면 인간은 맨얼굴(브라흐마)을 가지는데 업과 무명 때문에 맨얼굴로 사회에서 존립하지 못한다. 브라흐마(안심, 평정)인 맨얼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과 사랑밖에 없다. 결국 현대 한국식의 브라흐마 얼굴은 ‘믿음’과 ‘사랑’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이 지닌 본질적인 브라흐마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크샤트리아의

폭력과 불신을 '믿음이 있는 사랑'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최인훈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IV. 반브라흐마니즘적인 대립 해소의 의미

〈가면고〉의 에피소드들에서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은 민과 미라와 정임, 다문고 왕자와 그의 스승, 마술사 부다가와 왕녀 마가녀, 신데렐라 각본의 왕자와 신데렐라와 마녀 계모 등이다. 이들 사이에 벌어진 여러 이야기를 통해 대부분의 인간은 맨얼굴 상태로 태어났으나 불신과 폭력으로 인해 브라흐마의 얼굴 위에 크샤트리아의 가면을 쓰게 되며 그 위에 다시 브라흐마의 가면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간파한 최인훈은 〈가면고〉에서 이 문제를 형상화시키면서 현대적 브라흐마는 믿음과 사랑의 결합물이라는 것을 호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창작의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가면고〉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대 말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한국사회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최인훈의 〈가면고〉는 성자의 가면을 쓰고자 하는 민의 브라흐마 욕망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 전후 한반도의 사회 이데올로기(고대의 브라흐만교)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 가져온 공포와 불신 속에서 민은 싸움의 가면을 사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민으로 하여금 가면을 버리는 욕망을 갖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문고 왕자는 신분을 상승시킬 수 없는 크샤트리아 계급에만 만족하지 못했다. 이는 인간이 자유롭고 올바른 지아 수행을 통해 평화를 얻는다는 반브라흐마니즘적인 이념과 상통한다.

한국은 일제에서 해방된 뒤 내부적인 이념 대립으로 전쟁을 겪고 분단의 비극을 맞았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 전쟁이 끝난 뒤 이승만 정부는 제1공화국 시기 내내 끊임없이 반공의식을 통해 통치력을 강화시켰다. 북쪽의 공산당은 물론이고 좌익 인사들은 남한에서는 국가를 배반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에 등단한 최인훈의 문학작품에 대해 양윤모는 그의 소설

주제가 시종일관 ‘남북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남북한 정치체제의 문제점, 미국과 소련의 실상과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경계, 일제 잔재 청산의 미흡, 전통문화의 붕괴와 서구문화의 맹목적 수용과 왜곡’²⁴⁾ 등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인훈은 〈가면고〉에 대해 전통적인 윤리질서와 정치적 합리성을 현실에서 발견하지 못한 의식이 정신의 실험실에서 그것들을 탐구해본 사고실험으로 쓴 작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²⁵⁾ 즉, 〈가면고〉를 쓴 당시의 사회는 모든 것이 동요하고 불확실한 세계였기 때문에 작품에서 다루는 ‘가면’은 전쟁이 끝난 뒤 월남한 민중들의 반브라흐마니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과 다문고 왕자는 자이나교에서 주장하는 ‘올바른 믿음’과 불교의 주장인 ‘여덟 가지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 고통의 해소와 해탈의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전부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가 사랑과 믿음을 얻고 난 뒤에야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어 평화와 안정을 얻는다. 즉, 소설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서로 불신과 폭력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 주인공들의 마음은 반브라흐마니즘 시기의 혁신적인 추구와 같으나, 내적인 수행을 통해 평화의 생취를 주장한 자이나교와 불교의 방식과는 다르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동의 실천에 대한 절망감’ 및 ‘자발적인 노력의 불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인훈은 외부적인 교류인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여 타자들 간의 쌍방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함으로써 현대의 브라흐마적 성취를 완성하자는 것이었다.

쌍두의 뱀과 같은 사랑 이야기는 자유를 막는 ‘불신’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인도 왕자가 브라흐마 얼굴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국 당시의 지도자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군인과 예술가 및 성자라는 인물의 유형은 인도의 크샤트리아와 브라흐마 계급이라는 카스트 제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관점으로 보면 월남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또한 좌파와 우파라는 신분의 구별과 차별을 암시한다. 그러한

24) 양윤모, 『최인훈 소설의 ‘정체성 찾기’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9), 2쪽.
 25) 최인훈 저, 이태동 대담, 『작가와 함께 대화로 읽는 소설: 최인훈·가면고』 (지식더미, 2007), 175쪽.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지 못하는 이유가 곧 견고하게 정해져 있는 소위 '불신'에 의한 사회적인 차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결국 최인훈의 ' 가면'은 하나의 현대적인 자유의 상실이자 인도 베다 시기 브라흐마교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신분의 속박을 드러내는 형상이다. 가면을 벗기고자 하는 줄거리는 평등과 자유를 얻고자 하는 반브라흐마 문화의 반브라흐마니즘적인 정신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브라흐마니즘적인 '변화의 희망이 없는' 숙명에서 벗어나고자 한 주인공 민, 즉 최인훈은 반브라흐마니즘적 정신을 가진 혁신적인 선도자라 할 수 있다. 이에 〈가면고〉는 반브라흐마니즘적, 즉 반헤게모니적인 작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베다 시기의 반브라흐마니즘 요소 외에도 이 작품에는 간디의 비폭력주의라는 근대 인도적 이념도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왕녀 마가녀가 자기를 희생해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왕자의 폭력성을 와해시킨 부분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인도적 문화 요소로 소설을 구성한 최인훈의 의도는 반폭력주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의 제목인 〈가면고〉의 ' 가면'에 대한 최인훈의 깊은 사색은 분단 및 분단이 불러온 불신과 폭력에 의한 대립을 해소하려는 문학적인 표현이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인도 문화의 고대 브라흐마교의 관점에서 최인훈의 〈가면고〉에 나타난 가면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작가가 말하고자 한 가면의 고대적인 의미와 현대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전쟁, 성자, 가면, 맨얼굴, 3000년 전의 인도 왕자, 인도 공주, 업, 무명, 브라흐마, 사랑, 후회 등을 머릿속에서 거둬 사색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유의 계열들이 지니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 필자는 인도의 브라흐마 문화와 반브라흐마니즘적인 관점에서 〈가면고〉의 가면 문제를 살펴보았다.

작가는 주인공 민의 직업과 신분 및 정신적인 갈등 이야기를 통해 그는 당시 정해져 있던 사회의 제도에서 변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한국적 크샤트리아를 형상화했다. 이를 통해 그는 불신과 폭력이 없는 신성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맨얼굴

위에 두 가지 가면(크샤트리아와 브라흐마)을 사용하고 있음을 진단했다. 그 진단에 따르면 사랑의 공간에서도 끊임없이 크샤트리아들이 서로를 불신하면서 ‘브라흐마의 가면’을 얻으려는 잘못된 노력을 하게 되었다.

최인훈은 가면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민의 전신인 인도 왕자 다문고는 크샤트리아로서 브라흐마를 추구하는데, 그의 스승은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결과 강한 힘을 가진 왕녀 크샤트리아로의 희생적인 ‘사랑과 믿음’이 다문고 크샤트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반성하게 하여 평정을 얻게 한다. 민 역시 끝까지 자신을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정임으로부터 ‘믿음이 있는 사랑’을 얻게 되어 마음의 평정을 얻는다. 이 설정을 통해 최인훈은 ‘믿음이 있는 사랑’이야말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대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임을 밝히면서 현대의 한국적인 브라흐마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한국과 같이 분단과 대립의 현상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현실의 원인은 불신과 이에 의한 폭력 때문이다. 인도는 다원적 통일성이 존재함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인도는 과거의 반브라흐마니즘적인 다원성의 철학을 해방 이후에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랑의 성취에 실패하고 말았다. 〈가면고〉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카스트 제도인 브라흐마교의 문화를 초월하려는’ 브라흐마를 향한 욕망은 사실상 인도의 후(後)베다 시기 때 불교와 자이나교 등 혁신파(반-브라흐마니즘)에 의해 실현되었다. 그러나 실현되었던 그 욕망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한 브라흐마교의 개혁파인 ‘힌두교’에 의해서 후퇴하고 말았다.

한국에서도 불신으로 인해 월남한 자와 기존 남측의 좌우익의 민중들이 서로 두 가지 얼굴을 쓰게 되면서 진정한 자유와 안정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인도에서는 실제로 브라흐마(성자)를 향한 브라흐마적인 욕망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반브라흐마교의 반브라흐마니즘적인 사상가들이 그 꿈을 이루게 할 수 있었다. 최인훈이 〈가면고〉를 창작한 1960년대에서 반세기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재는 인도의 후베다 시기와 비슷하다. 따라서 그가 〈가면고〉에서 한국적인 문제를 반브라흐마니즘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해소하려고 한 노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최인훈, 『최인훈 전집』. 문학과지성사, 2009.

2. 논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2295쪽.

김미영, 「〈가면고〉의 서사 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화』 Vol. 25,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김병모,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역사의 아침, 2008.

김상수, 『최인훈 소설의 불교적 성격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김인호, 「텍스트의 유토피아와 삶의 변증법: 최인훈 소설 『가면고』론」. 『동국어문학』 10·11권,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1999.

김형준, 『이야기 인도사』. 청아출판사, 1998.

박주현, 「최인훈의 『가면고』에 나타난 프랑스 실존주의의 영향」. 『비교문학』 49권, 한국비교문학회, 2009, 131-154쪽.

백두현·배준영, 「한글문헌의 문화중층론적 연구방법 서설」.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영남지역 문화어문학 연구인력양성사업단 엮음, 『문화어문학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144-145쪽.

양윤모, 『최인훈 소설의 '정체성 찾기'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양윤의,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얼굴'의 도상학: 「가면고」를 중심으로」. 『한국문에 비평연구』 23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211-229쪽.

이상갑, 「『가면고』를 통해서 본 「광장」의 주제의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0, 76-98쪽.

이옥순, 『식민지 조선의 희망과 절망, 인도』.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6.

일연, 『삼국유사』. 서문문학사, 1994.

장사흠, 「최인훈 소설에 있어서 환상의 의미 -〈가면고〉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3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 235-255쪽.

장혜련, 「「가면고」의 「정체성 찾기」 연구」. 『현대소설연구』 38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348-365쪽.

정재림, 『문학을 심문하는 작가』. 글누림출판사, 2013.

최인훈 저, 이태동 대담, 『작가와 함께 대화로 읽는 소설 최인훈·가면고』, 지식더미, 2007.

황정현, 「『가면고』의 서사 구조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9집 9권 4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253-278쪽.

Chakravarti, K. C., *Ancient Indian Culture And Civilization*. Vora & Co., Publishers Limited, Bombay, 1952.

Majumdar, R. C., *Ancient India*,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Private Limited, Delhi, 1977.

국 문 요 약

이 글은 최인훈의 <가면고>에 나타난 인도 문화적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작품 속 가면의 의미와 그 시대적 의미를 조명하는 데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주인공 민은 전쟁, 성자, 가면, 맨얼굴, 사랑 등에 대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사색한다. 그는 또한 꿈에서 3000년 전의 인도 왕자, 인도 공주, 업, 무명, 브라흐마의 얼굴에 사로잡힌다. 최인훈은 현대 인물 민의 고통을 초래한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 시대로 돌아가 치료방법을 찾는 과정을 설정하였다. 최인훈은 인도 베다 시기의 문화적 관점이 가면에 대해 이해하기에 적절한 관점임을 발견하였다. 현대 인물 민은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실현하기 힘들었던 자유와 평등 및 안정을 추구한다. 한편 그의 전신 인물인 인도의 고대 왕자는 크샤트리아로서 불가능한 브라흐마적인 신분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서 평화와 자유, 그리고 당시 한국 지도자의 변화에 대한 최인훈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인도에서 브라흐마교의 신념과 반브라흐마교(반브라흐마니즘)의 신념이 서로 엇갈리고 결국은 브라흐마교가 부활하면서 반브라흐마니즘을 대체했듯이, <가면고>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이 당시 자유롭지 않는 사회에 의한 가면, 즉 자유롭지 않는 사회제도에서 벗어나려면 반이데올로기 이념보다는 폭력과 불신을 와해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랑'만이 최선의 해결방법임을 말해준다.

투고일 2016. 3. 22.

심사일 2016. 5. 16.

게재 확정일 2016. 6. 8.

주제어(keyword) 최인훈(Choi In-hun), 가면고(Reflections on a Mask), 인도 문화적 요소 (Indian Cultural Element), 브라흐마니즘(Brahmanism), 반브라흐마니즘(Anti-brahmanism), 브라흐마(Brahma)

The Significance of 'Mask' in Choi In-hun's "Reflections on a Mask": On the Basis of the Reflection of Indian Brahmanism Culture

Khan, Afzal Ahmad

This paper provides an important clue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Mask—the duplicate face—and significance of time period of the work through the analysis of Indian cultural elements which appears in Choi In-hun's work "Reflections on a Mask." The paper is exploring the identity of Min, a young person who lives in the post-Korean War time era. A war veteran and a writer Min finds his life unfulfilled until he stumbles upon a mysterious Psycho organization that offers him a procedure to aid in his search for true self. Min continuously reflects about war, sage, mask, bare face, brahma and love. He also captivated himself in the phenomenon of ancient Indian king, queen, karma, namelessness, brahma's face of three thousand year ago through the hypnotic treatment. Choi In-hun setup a search process of treatment method by going into the past age of India in order to understand the root cause of contemporary person's agony. He discovers that the perspective of Indian Veda period's culture is the most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Mask. The modern man Min pursues peace, equality and liberty that was not possible to be realize due to the confliction of ideology and identity. On the other hand, his former character and Indian ancient king pursues an impossible transformation of Kshatriya's identity into the Brahma. It exposes Choi In-hun's expectation about the peace and liberty and transformation of leadership at that time period.

In fact in India, belief in Brahmanism and belief in Anti-brahmanism crisscrossed each other and finally Brahmanism have been revived with a substitute of anti-brahmanism in early time. In the same way, Choi In-hun's "Reflections on a Mask" suggests that the mask was generated in the Korean society because society was not living in the real freedom at that time period, and if people really want to be free from the unfree society, they must avoid the ideological war with each other. A strong 'faithful love' is enough to resolve the disbelief and violation from the society and that is only best way of solution.